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대림 제1주일



새로움으로 오시는 예수님

본당에 부임해서 신자들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전에는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새로 시작하려던 일들을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본당을 떠날 때가 오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왜 우리 본당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세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전에 해오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기에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했을 뿐인데, 결국 익숙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기 마련인가 봅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일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지금과는 또 다른 신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내가 해오던 생활방식을 포기해야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내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지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한 새로움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과 평화, 정의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일시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는 새롭고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 시기 동안 그 완전하고 새로운 나라, 즉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옛것이 더 좋다며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움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기 전에 세상에 묶인 신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세상의 덧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세상,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은총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총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성근 에단 신부 | 합천본당 주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예레 33,14-16
-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제 2 독 서 1테살 3,12-4,2
- 복 음 루카 21,25-28,34-36

▶ 2022년 교구장 사목교서 4~5면

사제총회 및 연수



사제총회 및 연수가 11월 15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제연수는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원로사목자)의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강의 후 이어진 총회에서 각 국별로 2022년 사업 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용원성당 성전 봉헌식



11월 13일 용원성당(주임: 이정근 요한 신부)에서 300여 명의 교우들과 함께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의 주례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안명옥 주교는 강론 중 “용원본당 공동체는 새로운 성당에서 지역 사회에 주님을 선포하며 봉사의 삶을 사는 공동체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정근 신부는 “신자들과 갈등 없이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하였다. 봉헌식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많은 내빈을 초대할 수 없었으며, 축하연도 취소하고 기념빵과 기념품으로 대신하였다.



강론(음성지원) 안내

‘가톨릭마산(교구보)’ 1면 QR코드로 강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명화는 세상이 주는 명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내 안의 두 자아를 하나되게 하는 주님의 기도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르며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와 뜻을 잊은 채 너무도 쉽게 빨리 주님의 기도를 건성으로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건성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수백 단의 묵주 기도보다는 천천히 바치는 한 번의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더 깊은 주님과의 일치에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연결고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하느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일치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소서.”(마태 6,10)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마태 6,11-12)라는 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눈에 보이는 음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장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긴밀히 연결시켜 주는 양식은 말씀과 성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미사이지요. 미사의 양식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쌓아 놓은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는 미사와 화해의 고해 성사는 우리와 하느님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인 것입니다.

둘째, 이 용서의 고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용서의 힘 역시 하느님의 은총이기에 주님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일치시켜 주는 용서의 은총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죄)은 사랑의 결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의 잘못으로 결핍된 사랑을 당신 사랑의 표현인 용서로 다시 채워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를 다시 이룰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기도에는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충돌에서 당신의 뜻을 선택하여 일치된 자아를 갖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마태 6,13) 광야의 유혹에 노출된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일상 안에서 수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이타적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이 싸움에서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과 자주 깊은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종의 결핍인 “악에서 우리를 구해 달라”는 청원 역시 결국 모든 악은 외부로부터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내면의 자기 자신이 하게 되기에, 내 안에 계신 선이신 하느님과 함께 선택하게 해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하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규정에 얽매여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무한한 사랑에 자신을 넘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거짓 자아는 사라지고 하느님 사랑 안에 일치된 자유로운 자아만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도 구속받지도 않고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사랑만이!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참자아와 거짓자아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기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체험하십시오. 사람들과의 일치를 위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참된 일치를 위해 내 안의 거짓자아를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충만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라는 성모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간 별고 없으신지요? 코로나를 2년이나 겪다 보니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치아가 거의 없으신 할머니 입에서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술술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몸에는 이가, 뱃속에는 회충이 득실거렸던 ‘위드 벌거지(벌레)’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사정이 아직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교회는 대림절로 다시금 신앙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는 「나해」였기에 주일 복음이 주로 두 번째 복음서인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다해」로 세 번째 복음서인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 버렸지만, 꼭 다시 새겨야 할 지난해 2021년은 한국천주교회가 첫 사제들인 김대건, 최양업 두 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희년으로 선포한 한 해였습니다. 이 희년 동안 우리는 특별히 죽음이 설쳐대는 순교 당시의 기막힌 처지 속에서도 땀땀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신 두 분의 모습을 기리고 그 삶을 본받아 실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들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였고, 희년의 정신을 살아감에 있어 누구보다도 크게 동참했어야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엮드려 기도하는- “영적 다가섬”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고 핑계를 댈 수만은 없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농부와 농사일을 두고 자주 비유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우리 교회를 논밭에 한 번 비유해 봅니다. 무릇 소출이 잘 되려면 농부가 열심히 논밭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진 논바닥이 되고 풍부한 발뻐기가 되어 거기로부터 작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정도 이와 같음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위시한 교회 생활 전반이 참으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신자분들의 신앙 상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본당 신부님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많은 한계를 토로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천주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것도 어느 누가 전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내적 갈증이 복음을 들여오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한 분 없는 가운데서도 순교의 칼을 기꺼이 받아 가며 들불처럼 살아남아, 조선 천주교회는 진리에 목마른 우리 백성에게 영적 생명수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미지근한 신앙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목숨을 바쳤던 우리 신앙 선조께 다소 미안하긴 하지만 그저 지금의 경제적 안락함이 마음에 더 와닿고 우선하는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주교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신지요? 사랑하고도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들께도 묻습니다. 본당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담뭍 받고 신앙의 기쁨 속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투신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렇게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체념하며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젊은 신부 때는 제가 노력한 만큼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보여 줄 게 별로 없다는 사실과 또 그럴수록 죄스러운 내 속 모습이 드러날 뿐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자신의 멋진 장기와 수단을 보여 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혹은 약점을 끌어안고 깊이 묵상하여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초등학교 학예회 때 무대 위에 올라가 선생님을 따라 노래하며 춤추는 1학년 아이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을 따라 손을 놀리고 발을 굴러보지만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하고 빈번히 틀립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따라 해 보려고 이래저래 움직이는 모습이 밑에서 보고 있는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아름답고 장하기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부족한 주교와 우리 신부님들을 보는 눈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견진성사
 일시: 12월 5일(주일) 10:30
 장소: 사파동성당
 집전: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교구/본당

예신, 여성소 모임
 일시: 12월 5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준비물: 주일미사 준비

2023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면접
 일시: 12월 5일(주일) 15:00
 장소: 교구청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12월 11일(토) 13:00~12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통독범위: 요한복음/ 참가비: 6만 원
 대상: 접종 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자로
 선착순 20명 마감
 준비물: 성경, 마스크, 텀블러, 세면도구,
 필기구, 시계
 신청: 12월 5일(주일)까지
 문의: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문의: 055·296·9126/ 297·3288
 E-mail: magapok@hanmail.net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제주성이시들 자연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
 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일시: 22년 1월 15일~18일/ 22년 1월 22일~24일/

22년 2월 12일~15일/ 22년 2월 20일~22일/
 22년 2월 25일 ~27일/ 22년 3월 6일~8일/
 22년 3월 12일~15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2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신청: 12월 14일(화)까지
 접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2월 5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Anna Organ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문의: 010 6409 480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서울성지순례 2박 3일 25만원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주식회사 바른 23492387/23492388/23492389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도장공사업

주식회사 바른(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전화 : 010-5055-007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승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월) 16:00~22년 1월 1일(화)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 미사
 신청: 60실(1실당 1~2명) 선착순 마감, 계좌-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2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남지분당 제1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창선(베드로)
 사목협의회부회장: 장순화(모니카)
 총무·재경분과위원장: 서정훈(바오로)
 전례분과위원장: 황옥점(안젤라)
 복음화분과위원장: 장정숙(마리아)
 구역분과위원장: 김미자(아네스)
 청소년분과위원장: 김경화(아니시아)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석봉진(도미니코)
 홍보분과위원장: 차준모(아우구스티노)

●부곡공소
 공소회장: 주환찬(치릴로)
 총무·재경분과위원장: 천예송(라파엘라)
 전례분과위원장: 강명야(마리안나)
 복음화분과위원장: 손상숙(레지나)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강영훈(라파엘)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마산교구 위원회

■사제 대표
 위원장: 여인석(베드로) 신부
 원로사제 대표: 이제민(에드워드) 신부
 서품 30년이상 대표: 이청준(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특수사목 대표: 박혁호(미카엘) 신부
 서품 20년이상 대표: 이진수(스테파노) 신부
 젊은사제 대표: 최진우(아드리아노) 신부

■평신도 대표
 교구평협 회장: 백균철(바오로)
 여성협의회 회장: 최남순(스텔라)
 레지아 단장: 박세옥(레미지오)
 꾸르실로 주간: 최정이(데레사)

■수도자 대표
 수녀연합회 회장: 박춘도(베로니카) 수녀
 수녀연합회 부회장: 허행숙(비비안나) 수녀

세계주교시노드 2021-2023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이 참 여 사 명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 산타가 되어주실래요

산타가 되어주실래요

겨울이 더 외로운 이웃에게
 선물을 전하는 산타!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이웃들!

12월 25일을 의미 있게 2,500원을 계좌로 보내주세요.

- 단기모금기간 : 12월 12일(주일)까지
 후원 계좌 : 농협 301-0083-8432-91 성산복지관
 ▶이체 후 복지관으로 연락바랍니다.(기부금영수증 발행)
 문 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산타가 되어주실래요

겨울이 더 외로운 이웃에게
 선물을 전하는 산타!

단기모금 2021년 12월 12일 까지

1. 2,500원을 보낸다.
 농협 301-0083-8432-91
2. 이체 후 복지관으로 연락
 282-3737 (기부금영수증)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이집트를 떠나 바닷가에 이르다(탈출 13,17-14,14)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서른 번째 순례 여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그 어떤 여정보다 더 가슴 떨리고 흥분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장을 단단히 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서둘러 길을 떠납시다. 그들은 니산 달 14일 밤에 길을 떠납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들이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통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메고”(탈출 12,34)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그동안의 노예살이에 대한 대가라도 되는 듯이 이집트인들에게서 은붙이와 금붙이와 옷가지를 받아냅니다. 이렇게 하여 창세 15,13-14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이들은 어린이를 제외하고 장정만도 60만 명이었고, 많은 외국인도 여기에 가세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집트에 머물던 외국인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장정이 60만 정도면 여기에 여인들과 어린이들의 수까지 합하면 대략 250만 명이 됩니다. 이 정도의 인구라면 시나이반도 전체가 사람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이사악, 야곱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수컷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인 해안도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해안도로를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무렵인 기원전 13세기에는 아직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땅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표현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약 백 년 후인 기원전 12세기 경에 팔레스티나의 해안가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안도로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파라오가 그들을 추격해올 때 두려운 나머지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탈출 13,17 참조). 이스라엘 백성은 수컷을 지나 에탐에 진을 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군을 계속한 그들은 므딕과 바알 츠폰 앞 바다 사이에 있는 피 하히롯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마음이 완고해진 파라오가 병거 육백 대의 정예부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인들의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혼비백산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였고, 뒤로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 그들은 억지로 여행을 따라나선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을 익히 체험하였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구원 체험에 바탕을 두고 현재의 위기를 해석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들을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몸소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탈출 14,13-14). 우리는 어떻습니까?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느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까? 시련과 위기가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는 하느님의 초대장임을 압니까?